예수님 족보에 달린 악플(?)

(마태복음 1:1~25)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족보에 달린 악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달린 악플(?)'

악플이란 "악성 리플라이(reply)"로써 인터넷의 악성댓글을 말합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요즘 시대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써 악플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하는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악플 뒤에 (?)를 넣은 이유는 실은 악플이 아니지만 악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세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란 생물학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요셉이나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써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그릇으로써의 족보에 요즘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악플 같은 내용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 또한 거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얽힌 사건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구한 에스더와 같은 위인으로써의 여성도 있지만 그런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다섯 명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네 명은 유대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계사회였던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굳이 달지 않아도 되는 여인의 이름을 왜 달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피할 대상으로 여겼다면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기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시작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까지 도달하게 되는 고리들의 이름만을 나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분명한 복음적 의도를 가지고 흠결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로 상징되는 해방과 엘리야로 상징되는 승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게 됩니다. 그 모습이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예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현실에 해방과 승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조합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로 상징되는 해방과 엘리야로 상징되는 승천을 그 생애를 통해 가장 온전하게 표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민의 마음이 땅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늘로 승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적용한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봄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는가를 완벽하게 그려내셨습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해방과 승천이 적용될 경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신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보낸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생애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해방과 승천의 삶이 인격에서 구현되었던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세와 엘리야로 상징된 해방과 승천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등장시킨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써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그려내신 해방과 승천이 임하고,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그려내신 해방과 승천이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의 완벽한 믿음의 모습과 그 믿음을 실제 적용한 다윗을 통한 삶의 모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족보와의 연관성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란 곧 이 땅에 있는 인간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었습니다. 한편 족보는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다섯 여인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섯 명의 여인은 모두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며느리였던 양귀비를 자기 첩으로 삼아 암군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왕도 아니었던 평범한 히브리 유랑민이었던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은 이보다도 악했습니다. 다말은 매춘부로 위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여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만 다말이 이렇게 한 원인은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가 계대결혼의 제도를 어기고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하고 패륜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릇으로써의 족보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악플이 없을 지경입니다.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라합은 애초에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의 기생 즉 매춘부였습니다. 다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선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문제는 라합이 이방인이고 매춘부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민들 중에 라합이 매춘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은 이후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매춘부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머니가 바로 매춘부였고 심지어 온 민족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보아스의 배경은 이후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 여인으로 등장한 룻은 모압 출신의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과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 보아스는 계대결혼의 우선적인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이방인 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출신 배경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인 매춘부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에 비해 이방인에 대한 저항감이 적었으리라는 합리적인 추측도 가능합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의 출신지였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의 큰딸과 근친상간하여 시

작된 민족이었음을 생각하면 선민의 역사에 오점이 남았다고 여겨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일들이 버젓이 들어와 있으니 악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 사람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참으로 정신이 아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이름들이 언급되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악플 같은 이름들을 빼버리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마태가 굳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이름들을 언급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방과 승천의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십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땅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또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밀착시켜 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하늘로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이 족보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유다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만 하고, 이방인 매춘부 라합을 어머니로 두고 모압의 과부를 아내로 삼은 보아스의 입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야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윗은 계략을 써서 충신 우리야를 살해하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고,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니 십계명의 주요 계명을 많이도 어긴 셈입니다. 이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시아버지로써 며느리의 손목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유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을 예로 들자면 "나는 성군 다윗의 발밑에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윗이 밑바닥을 드러냈을 때만큼 악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며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렸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섯 여인과 연관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다나 다윗의 사건들은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여인들의 이름들을 등장시켰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죄는 곧 땅의 노예가 된 상태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곧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설령 유다처럼 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서 비치는 우리의 모습은 유다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사는 모습이 바로 죄이며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나 다윗의 범죄를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혐오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의 노예가 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혐오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쌍둥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참담하게 여겼고, 충신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강탈한 다윗이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참담하게 여겼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등장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고 간음한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의도에 부합하는 존재가 됩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는 동안에는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부하의 아내와 간통하여 자식을 낳았고 심지어 기관을 통해 그 부하를 암살시키려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것입니다. 이때에 스스로를 여전히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법과 국민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여겨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신다면 나도 나를 죄인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점이 일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괜찮다고 여기는 동안에는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듯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는 다섯 여인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를 상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죄인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일치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마치 악플과도 같은 네 여인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를 상징하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여인과 관계된 사람의 심정으로 나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환멸을 느낄 정도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했듯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본문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대로 네 여인과 관계된 죄인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일치하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해방과 승천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